

남성의학 전문의 소영석의
술적·대담한 性

유사성행위 대표질환은 '음부포진'

30대 초반의 남성이 3년전부터 음경 표피에 물집이 생기면서 따갑고 가려운 증상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 남성은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저절로 좋아져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최근 과로로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아가 음부포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이러 이유로 음부포진은 윤락여성 및 일반인에서도 감염률이 높으며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성병인 임질보다 10배정도 더 흔하다. 단순포진은 바이러스 질환으로 1형과 2형으로 나뉜다. 1형은 키스를 통해 전염되어 입술이나 그 주변부위에 물집 형태로 나타나 심신이 피로할 때 반복되는 반면에 전염성이 강한 2형 즉, 음부포진은 배꼽 아랫부분이나 성기 주변의 은밀한 부위에 물집이 생긴다. 감염자 중 물집이 생기지 않고 가려움이나 열악한 증상 또는 요도 분비물만 나와 감염 사실을 알기가 힘든 경우도 많으며 증상이 나타나도 2주 정도 지나면 자연히 사라져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음주나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재발하며 1년에 평균 4~5회 정도 재발한다. 음부포진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으나 성기

나 항문주위 등에 물집이 생기고 가렵고 짜릿한 증상 등이 반복되기 때문에 불편감을 느끼게 하여 예상외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 중요한 점은 음부포진이 성병인걸 모르고 지나치다가 배우자에게 감염시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신 후반기에 음부포진에 감염되면 신생아가 감염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 감염된 신생아는 기형아가 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신부가 감염돼 산도에 물집이나 증상이 있을 경우는 자연분만시 산도를 통해 포진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되도록이면 제왕절개술을 해야 한다. 콘돔이 성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음부포진에서는 피부 접촉 부위에 병변이 있으면 콘돔도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감염된 경우는 성 상대자가 증상이 없더라도 함께 검사를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으로 전과 경로를 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검사 결과 음부포진에 감염됐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부부관계 때 되도록 콘돔을 사용하고 입주위에 물집이 생기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구강성교나 입맞춤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성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면 상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감염여부가 의심스러울 때도 주저하지 말고 상대에게 사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염을 막을 수 있고 상대도 함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완치가 힘들며 단지 재발시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면 증상의 완화, 치료기간의 단축 및 재발빈도를 줄일 수 있다. 재발을 막으려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한 휴식과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음부포진의 치료에서 중요한 점은 환자교육과 상담이다. 상담을 통해 이 질환의 만성적인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 시킬 수 있고 증상을 미리 알게 함으로써 예방하고 감염 사실을 알았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하므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명비노기과원장>

리빙 센스

뱃살 빼는 습관 ②

- ▶발바닥 지압
입지발가락과 검지 발가락 사이를 눌러주면 소화에 좋다. 왼발부터 매일 10분 정도 해준다.
▶올바른 자세로 걷기
바른 자세로 걸기만 해도 아랫배를 빼는데 도움이 된다. 걸을 땀 가슴을 펴고 시선은 앞으로 향하도록 하고 아랫배와 엉덩이에 힘을 준다.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크게 걸으며, 발이 일(-)자가 되도록 하면서 걸으면 아랫배가 들어가고 바디라인까지 살릴 수 있다.
▶복부운동
윗몸일으키기를 하되 완전히 일어나지 말고 45도 각도까지만 몸을 세웠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한다. 복부 운동은 뱃살이 어느 정도 빠진 후 시행하는 게 좋다. 배가 나온 상태에서 복부운동을 하면 뱃살이 단단해져 오히려 뱃살 빼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함께 풀어봅시다 < 30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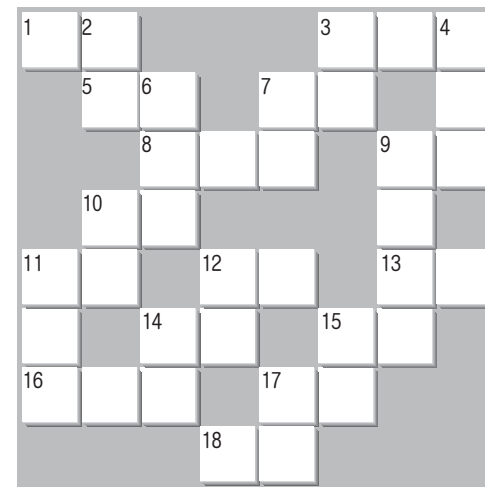
→ 가로풀이

- 1.흑연과 점토의 혼합물을 구워 만든 가느다란 심을 속에 넣고, 나무로 둘러싸서 만든다. 3.총알을 막을 수 있도록 만든 승용차. 5.이름난 악곡. 또는 뛰어난게 잘된 악곡. 그는 삼금을 울리는 ~을 남기고 싶어했다. 7.어떤 어장(漁場)에서의 고기잡이 상황. 물고기의 종류, 크기, 어획량 등의 변동 상태를 이른다. 올해는 ~이 좋다. 8.민간인이 출자해 운영하는 기업. 9.군대에서 대대보다 작고 소대보다 큰 단위 부대. 10.군함이나 전차에 장치한 포(砲) 가운데 가장 위력이 큰 포. 배구나 야구에서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살마리. 그가 문제 해결의 ~를 제공했다. 12.농사짓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사람. 13.임금의 사위를 이르는 말. 14.말하는 솜씨나 힘을 이르는

말. 그는 ~이 좋았다. 15.말이 없음. 회사 측은 그에게 사퇴하도록 ~의 압력을 넣었다. 16.어떤 물질이 기름에 녹는 성질을 말함. 17.도자기를 이용한 미술과 공예. 18.재난을 피해 멀리 옮겨 감. 지진이 나서 사람들은 ~을 떠났다.

↓ 세로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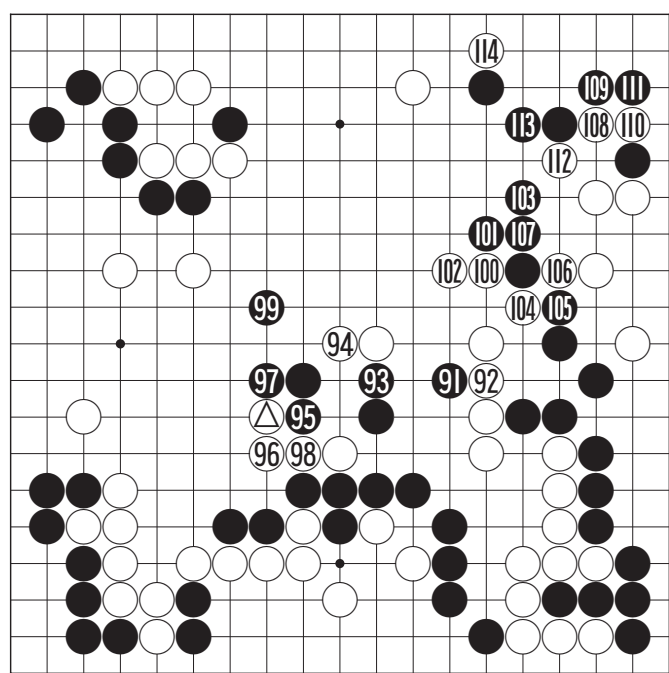
- 2.글을 발표할 때 사용하는, 본명이 아닌 이름. 그는 ~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 3.분명한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함. 짧은 시절의 ~. 4.지금 세대가 지난 다음 세대. 6.포탄이 폭발을 그리며 나가게 쏘는 포. 장애물 뒤에 있는 목표물을 맞히기 위해 쓴다. 7.영리를 목적으로 물고기, 김, 미역 등을 잡거나 기르는 산업. 또는 그런 직업. 선진국은 잡는 ~에서 기르는 ~으로 변화하고 있다. 9.이미 한 말을 자주 되풀이함. 그는



<함께 풀어봅시다 303회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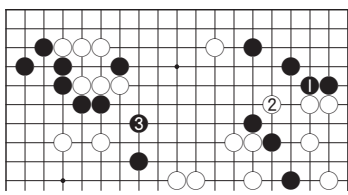
- ▶지난주 정답자
김성현·구례군 구례읍 백련리
임서하·광주시 서구 화정동
행운의 숫자: 14, 38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문배재부

술에 취했는지 계속 ~했다. 10.한 주일(週日)의 처음. 11.무를 시들시들하게 말려 소금에 절여서, 쌀의 속겨로 격지를 지어 담가 만드는 일본식 잔지. 12.색깔이나 명암 등의 짙음과 열음. 또는 그런 정도. 14.성안으로 들어감. 또는 적이 있던 도시를 함락하고 들어가 점령함. 15.검술 궁술 등 무술에 대한 재주. 17.도둑을 맞는 재난. ~경보기.



제17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직능이특대인

블리하다는 강박감
6보 (91~114)



<참고도>

세불리를 느낀 허우석 5단이 백△로 중앙 흑 대마 공격을 시작한 장면이다. 현재 확정지를 보면 흑은 40여 집을 확보하고 있는데 비해 백은 집다운 집이 없다. 어떻게 하든지 이 흑 대마를 공격해 상당한 전과를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박광주 5단은 이를 간파하고 흑 91부터 97까지 안전위주로 확실한 연

결을 피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허우석 5단은 집을 없애야만 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백 98로 함집을 연결하는 실착을 범하고 만다. 이 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불필요한 수로 지금은 일단 99 자리에 두어 봉쇄를 하고보아야 했다. 흑 99가 요소로 이 수로 인해 상변에서 큰 집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졌다.
백 100으로 붙어 보강할 때 흑 103으로는 '참고도'처럼 1로 귀를 지키고 3으로 중앙을 두는 것이 깨끗했으며 그랬으면 변수가 없었을 것이다. 백 114까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다.
<요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디아체, 티브로드 제압

울산 디아체가 1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08한국바둑리그 4라운드에서 이복5도 티브로드를 제압했다.
디아체는 제1국 주자로 나선 김기용 4단이 티브로드 이춘규 초단에게 184수 만에 불계패 당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백홍석 6단, 강동윤 7단, 최원용 5단이 잇따라 승전보를 올리며 승리를 따냈다.
백홍석은 김승준 9단에 202수 끝에 불계승을 거두고, 강동윤도 최명훈 9단을 상대로 173집만 차이로 이겼다. 최원용도 이원도 초단에 173수 만에 불계승을 거두고 팀 승리에 기여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주박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일(음 4월 29일 癸酉)
36년생 뜻하는 일은 이루어지나 소욕은 작다. 48년생 바쁜 하루가 될 것이니 준비를 잘하고 있다. 60년생 예인이 생기지만 마음에는 안 든다. 72년생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기나 조금 크게 걸으며, 일이(-)자가 되도록 하면서 걸으면 아랫배가 들어가고 바디라인까지 살릴 수 있다.
행운의 숫자: 09, 36
37년생 욕심을 버리면 큰 득이 올 수도 있다. 49년생 인생행로에 변화가 보일 것이니 판단을 잘하라. 61년생 여유 있게 생각하라 계획은 꼭 성사 될 것이다. 73년생 작은 병도 살펴봐라. 85년생 분수를 지키면 큰 화도 비켜간다.
행운의 숫자: 07, 40
38년생 협력자는 나타나나 큰 도움은 못준다. 50년생 과욕만 하지 않으면 대고는 없다. 62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소화에 그친다. 74년생 미운사람이 나타나지만 화해하면 내 사람이 된다.
행운의 숫자: 21, 25
39년생 옛 일을 잊고 새로운 일을 모색하라. 51년생 가정 직장 자신사이에 불편사가 생기나 해결은 곧 된다. 63년생 놀라운 일이 생기지만 큰일은 아니다. 75년생 화형점점 마무리가 좋으니 재물도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14, 38
39년생 옛 일을 잊고 새로운 일을 모색하라. 51년생 가정 직장 자신사이에 불편사가 생기나 해결은 곧 된다. 63년생 놀라운 일이 생기지만 큰일은 아니다. 75년생 화형점점 마무리가 좋으니 재물도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14, 38
39년생 옛 일을 잊고 새로운 일을 모색하라. 51년생 가정 직장 자신사이에 불편사가 생기나 해결은 곧 된다. 63년생 놀라운 일이 생기지만 큰일은 아니다. 75년생 화형점점 마무리가 좋으니 재물도 얻으리라.
행운의 숫자: 14, 38
42년생 아들과 많은 대화 필요하니 기회를 만들라. 54년생 친구의 도움이 절실하니 옛정를 잘하라. 66년생 예정대로 구설수가 생겨나니 명예가 격정된다. 78년생 인생의 경험이 후한전의 전략이니 지혜롭게 진행하라.
행운의 숫자: 05, 26
43년생 친구의 지혜를 빌리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55년생 젊음보다 경험이 우선이다. 선배의 도움을 청하라. 67년생 아내의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살펴봐라. 79년생 남편이 고민한다.
행운의 숫자: 01, 35
44년생 안배를 조정하면 만사가亨통하다. 56년생 친절한 접근자의 많은 손익수가 있을 수도 있으나 조심하라. 68년생 고통이 따를 수도 있으나 심상을 굳건히 하라. 80년생 미리 준비하면 살마리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18, 32
45년생 불연이 이별수도 있으니 대화로써 해결하라. 57년생 형제 부모가 도우니 모든 일이 평온하다. 69년생 진퇴를 분명히 하라 득과 실이 교차된다. 81년생 자녀의 고충이 보인다 대화하면 풀리리라.
행운의 숫자: 04, 42
46년생 이성으로 마음이 헛갈리니 중심을 찾아라. 58년생 큰일은 아니니 울고 싶은 일이 생기니 마음껏 울라. 70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고민이 풀려간다. 82년생 승리를 역투하면 결과가 없다.
행운의 숫자: 06, 28
47년생 입으로 공든 탑이 무너지니 주변인에게 배물어라. 59년생 잔고 끝에 악수 나오니 오래 동안 생각한 것을 결단하라. 71년생 타인과 구설수는 본인의 잘못이다. 83년생 만사大吉이 열려오니 지난 일을 회개하라.
행운의 숫자: 02, 43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더마플라스트 DermaPlast
우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172>
You've worn the same thing for a week. 너는 일주일 동안이나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A: You've worn the same thing for a week.
B: I know.
A: I take it you like the shirt
B: Yes, It's just so comfortable.
A: 너는 일주일 동안이나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B: 네, 그래요.
A: 보아하니, 너는 그 셔츠를 좋아하구나.
B: 예, 정말 편안해요.
\* I take it ~ : ~보아하니
\* 보아하니 너는 타이거즈 팀을 엄청 좋아하구나
= I take it you're a fan of the Tigers.
오하오우 니혼고 <1172>
故郷(こきょう)の香(かお)りがしますね. 고향의 향기(정)가 납니다.
A: 佐藤(さとう)さん, 日本にもそれぞれの地方(ちほう)に訛(なまり)があるんですよ.
B: ええ, もちろんですよ. でも, 東京に住(す)んでいる人は方言(ほうげん)はほとんど使(つか)いませんね.
A: 方言(ほうげん)ってあなたか味(あじ)を感じますけどね.
B: そうですね. 故郷(こきょう)の香(かお)りがしますね.
A: 사또 씨, 일본에도 각 지방에 사투리가 있지요?
B: 예에, 물론입니다. 하지만, 동경에 살고 있는 사람은 방언(사투리)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A: 방언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B: 그렇습니다. 고향의 향기(정)가 납니다.
地方(ちほう) : 지방
あなたか味(あじ) : 따뜻함
感(かん)じる : 느끼다
니하오 쵡구위 <149>
不要(ふよう)了(りょう). 원하는 게 없습니다.
A: 你要什么?
Nǐ yào shénme?
나 뭐요?
B: 我要一杯咖啡, 一杯可乐.
wǒ yào yì bēi kāfēi, yì bēi kělè.
저는 커피 한잔과 콜라 한잔을 원해요.
A: 还要别的吗?
Hái yào bié de ma?
아니 다른 게 없어요?
B: 不要了.
bú yào liǎo.
부요료.
A: 왜 열거하지?
B: 커피 한잔하고 콜라한잔요.
A: 또 열거하면 거 있어요?
B: 원하는 게 없습니다.
咖啡 [kāfēi] 커피
可乐 [kělè] 콜라
不要 [búyào] 필요없다, 원하지 않는다
한자 이야기 <789>
無顔(무안)
없을 무, 얼굴 안
무안(無顔)은 '무안색(無顔色)' 또는 '무색(無色)'이라고 하는데, '얼굴이 없다'는 뜻이다.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거나, 상대방을 볼 면목이 없는 경우를 비유한다.
이 성어는 백낙천(白樂天, 772~846 본명은白居易)의 '장한가(長恨歌)'에서 유래한다. 장한가는 백낙천이 36세 때 지은 작품으로 안녹산의 난(亂)으로 당나라 현종(玄宗, 재위 712~756)이 양귀비(楊貴妃, 719~756)를 잃은 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한 장편시이다. 무안은 양귀비 앞에서는 궁녀들의 고운 얼굴이 무안(無顔), 무색(無色)하다는 것으로 다음처럼 노래하였다.
"한나라 황제가 여색을 좋아하여 뛰어난 미인(傾國之色)을 사모하는데 / 황제에 올라 몇 년 동안 찾았어도 얻지를 못하였네. 양씨 집에 딸이 있으나 처음 성장할 때는 / 규중(閨中)에서 자라 아무도 알지 못 하였네 / 하늘이 준 미모는 스스로 버리기 어려워 / 하루아침에 간택되어 임금 곁에 머물게 되었네 / 눈동자를 돌리며 한탄 웃으며 온갖 아양이 생겨나 / 육궁(六宮)에서 분단장한 궁녀들이 얼굴빛을 잃었다네(無顔色)"
<한여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